

한·칠레 정상회담 관련 서면브리핑

2019-04-29



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전 국민방한 중인 세바스티안 삐네라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, 양국 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습니다.

정상회담에서 삐네라 대통령은 한국의 태평양동맹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고, 또한 한·칠레 FTA 개선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

이에 문 대통령은 “현재 양국 간에 진행되고 있는 FTA 개선 협상에서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 간 미래 경제협력을 더욱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.” 며 “태평양동맹 차기 의장국인 칠레의 리더십 발휘를 통해 양국 FTA 개선 협상과 한국의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협상이 동시에 진행되길 바란다.” 고 말했습니다.

한반도 비핵화,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 삐네라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노고에 사의를 전하며 “한반도 비핵화는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의 문제이다. 지금까지 대통령께서는 한반도 비핵화에 큰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북미 대화에 있어서도 유용한 역할을 해왔다. 앞으로도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지혜로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.” 고 말했습니다.

이에 문 대통령은 삐네라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에 감사를 전하며, “북미 양 정상에 대화 의지를 밝힌 만큼 3차 회담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진해 나가겠다.” 고 답했습니다.

삐네라 대통령은 “2030~40년 사이에 탄소 제로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.” 며 대중 교통의 전기차로의 전환, 바람·태양 등 재생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,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산림 보호 등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.

이에 문 대통령은 삐네라 대통령의 탄소 제로 방침에 경의를 표하며 “우리도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 협력해 가자.” 고 답했습니다.

삐네라 대통령이 한국의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언급하며 환태평양 해저 광케이블 등 정보 통신 분야에서의 협력을 요청했고, 문 대통령은 5G 네트워크 상용화 등의 통신 인프라 사업에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의 참여 확대를 희망했습니다.

문 대통령은 “남미 최초의 4차로 현수교인 ‘차카오 교량’ 도 우리 기업이 건설하고 있는데 이 건설의 순조로운 완공을 위해 칠레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.” 고 당부했습니다.

* 차카오(Chacao) 교량 : 칠로에섬(Chiloe)과 본토를 연결하는 남미 최초의 대규모 4차선 현수교로 상징성이 높은 사업.(현대건설 수주)

2019년 4월 29일
청와대 대변인 고민정